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 | www.facebook.com/iope.kr | instagram.com/iope.official

*이오페 라이브 리프트 세럼 인체적용시험 결과(개인차 있음) 조사 기간: 2016.10.31~11.29 (시원 사용 전 제품 사용 2주 후, 시원 사용 4주 후) 조사 인원: 피부탄력(2)값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한 여성 25명 조사 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1년 전 피부 탄력(R2)값과 사용 2주 후 탄력(R2)값 비교 기준



NEW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팽팽하게

| 아이오페 라이브 리프트 세럼 |

주름이나 잡티가 생긴 것도 아닌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을 땐, 리본존을 체크해보세요.
얼굴 양 볼의 큰 면적을 뜻하는 리본존의 탄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부는 빠르게 나이 들기 시작합니다.
슈퍼플랜트 용설란의 생명력이 담긴 아이오페 라이브 리프트 세럼으로 리본존을 케어해주세요.
2주 후, 한 살 더 어린 피부탄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 그 이상의 변화 - 아이오페 라이브 리프트 세럼

IOPE

IOPE (Integrated effect Of Plant Extracts) 아이오페는 식물 과학을 통해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한 정확한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행복한 소비자가

5 * 6

2017
제 467호



2017.1.1.

재가치료 **요양비** 혜택이 늘어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요양비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예) 가정산소·인공호흡기 대여, 자가도노 카테터 구입비용 등

요양비 급여확대 주요내용 (2017년 1월 1일 시행)

질병악화 예방 및 생명유지 등을 위해 재가치료 시 필요한 기기대여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확대 지원합니다.

- 01**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신설)
기준금액 월 20만원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
- 02** 기침유발기 대여료 (신설)
기준금액 월 16만원 (대여를 월 중에 시작 또는 종료한 경우 일할 계산)
- 03** 자가도노 소모성 재료 (카테터) 급여대상 확대
(중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확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포함
※ 기준금액 1일 9,000원 (카테터 1일 6개 한도) ... 현행 선천성과 동일
- 04**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개선
카세트, 배액백,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1일 1개씩 지급
※ 기준금액 상향: 5,640원/일 → 10,420원/일

요양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로서 해당 요양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에 등록된 제공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대여·구입한 경우에 지원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요양비 청구

급여대상자 등록	처방전 발행 및 기기대여·소모성 재료 구입	요양비 청구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필요)로 제출 ※ 산소치료 및 자동복막투석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전문의가 요양비 처방전 발급 환자는 등록된 업소에서 필요한 기기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 구입 	기기 대여료/소모성 재료 구입비 청구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② 요양비 처방전 ③ 세금계산서 ④ 표준계약서 (산소치료·기침유발기)

요양비 지원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행복한 소비자

5*6
2017
제 467호

생각해봅시다

4 에너지절약으로 환경보호와 건강증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권수에

전국지도자대회

6 성숙한 소비문화를 이끌어 가는 전국지도자대회

8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알아봅시다

10 달콤한 당류, 건강하게 섭취하자

소비자정보

12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이제는 앱으로 찾자

13 소비 트렌드 '탕진잼' 아시나요?

상담사례

14 소비자의 소리 김영란

수필

16 구원(具元) 농장의 고양이, 라온 원숙자

생활정보

18 전기절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행정보

19 휴양림 숲길로 떠나볼까요

지부소식

20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소비자교육중앙회 게시판

29 2017년도 전국지도자대회 찬조금 명단
30 <주부대학·대학원 방학> 및 <가정 대상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발행일 2017. 6. 15
등록일 1972. 8. 31
등록번호 라-1616호
발행 사단법인소비자교육중앙회
발행인 주경순
편집인 원혜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5길 7
전화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팩스 2279-9341
홈페이지 http://www.ncce.or.kr
인쇄 세일에스엠피

비매품



에너지절약으로 환경보호와 건강증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권 수 애 / 충북대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아침 기온이 한 낮과 너무 다른 날씨가 때문에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출근할 때 입을 의복을 정하지만 일교차와 실내외 온도 차가 커서 한 벌의 옷으로 하루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많다. 여벌의 걸옷을 하나 더 준비하면서 기후에 적합하게 조절이 가능한 의복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한다.

사계절이 뚜렷하던 우리나라에서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기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은 아니다. 개발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기술과 경제의 발전에 급급한 나머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전하지 못해 가뭄이 심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전에 없던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잠시일 뿐, 이미 익숙해진 편리한 생활을 선택하는데 무감각하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대응과 실천이 절실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환경 보호가 최적 대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

람은 없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기후 변화 대책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 중 가장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지속적이어야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여전히 가시적인 산업발전의 성과에 밀려 녹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그동안 생활의 편리를 우선해 온 우리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불편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습관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후변화 대처방법인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항온동물에 속하는 사람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율성 체온조절기구를 가동하게 된다. 인체는 춥거나 더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에 따라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기온이 낮아지면 체내의 더운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부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의 긴장과 떨림으로 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기온이 높아지면 더운 열을 체외로 내보내기 위해 피부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내어 피부표면의 수분 증발을 유도해서 체열의

발산을 증가시킨다. 더울 때 땀을 내고 추울 때 몸이 떨리는 현상은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자율적인 생리반응인 것이다.

자율적인 체온조절 반응과 함께 우리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과 문화적 이기(利器)를 활용하고 있다. 추울 때 열 발산을 억제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더울 때는 열 발산을 촉진하기 위해 몸을 펼치게 된다. 환경변화에 따라 알맞게 의복을 입고 그늘이나 양지를 찾아 이동하거나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행동성 체온조절의 일환인 셈이다. 난방기나 에어컨의 조작과 같은 행동성 체온조절에 의존하는 것은 쉽고 빠르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율성 체온조절 반응의 기회가 적어져 점차 체력이 감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일한 인종이라도 태어나서 더운 기후 환경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한 사람보다 땀샘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땀샘 수의 증가는 더운 환경에서 땀을 잘 내어 체온의 상승을 막는 적응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더위에 자주 노출되어 땀을 흘리는 것은 폭염을 견디는데 유리한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추운 환경과 더운 환경에 노출될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율적인 체온조절능력이 향상되어 내한내열성이 증진되었다는 연구보고들도 많다. 장기간 높은 실내온도에서 생활하면 낮은 온도에서 생활한 사람보다 추위에 견디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난방온도가 높은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람들과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동일한 실내온도에서 느끼는 쾌적성이 다른 것을 보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겨울철에 어려서부터 옷을 얇게 입히는 습관이 추위에 견디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겨울에 옷을

얇게 입는 훈련한 아이들이 실외활동을 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이는 체력 향상과 감기이환율 감소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겨울철 반바지 교복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생활의 쾌적함만을 추구하여 의복의 착용이나 실내 냉난방기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일 뿐 아니라 체력의 감퇴를 초래하는 반면,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며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것은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데도 확실한 도움이 된다.

최근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는 27℃ 정도이다. 에어컨의 사용을 줄이고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여 더위를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 목이 올라오지 않는 짧은 소매의 상의에 무릎길이의 하의를 입고 양말을 신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여러 겹 겹쳐 입지 말고 얇고 성글게 짜인 옷감을 선택하고, 매끈한 것보다 울퉁불퉁한 옷감은 몸과의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유지해주어 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목둘레와 소매부리나 의복 밑단을 넓게 하고 상의를 바지나 스커트 밖으로 꺼내어 입으면 체내의 더워진 공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해준다. 햇빛이 강한 실외에서는 신체를 덮어 자외선과 복사열을 차단하는 긴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흰색이나 옅은 색 의복은 일광의 반사에 효과적이고, 시각적으로도 시원해 보인다. 땀 성분은 공기 중에 산화하여 악취와 세균번식의 원인이 되므로 내의와 양말 및 신발은 자주 갈아입고 세탁할 필요가 있다. 의복과 신발을 번갈아 사용하면 착용으로 인해 변형된 부분이 회복될 기회를 주어 수명도 길어져 경제적이다.

올 여름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소 더위를 느끼며 땀 흘리는 기회를 가져 체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보기를 권한다. ☘

성숙한 소비문화를 이끌어 가는 전국지도자대회

- 지도자 982명 참석해 자질함양과 역량강화에 힘써 -

본회는 해마다 16개 시도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회장단과 임원급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소비자교육중앙회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3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27일(목) The-K 서울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지도자 9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숙한 소비문화를 이끌어 가는 전국지도자대회'라는 주제로 소비자주권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성숙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올바른 소비자 역할 및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남상택 본회 부회장의 사회로 대회의 시작을 알리며 16개 시·도지부 지부기가 입장했으며, 소비자교육중앙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본회 지도자들을 위한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서길원 대구광역시지부 운영위원, 김순자 경기도지부 파주시지회 지회장, 박정숙 경상북도지부 안동시지회 지회장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10년 이상 본회 회원으로서, 여성 지

도자로서 봉사활동을 해주신 122명의 지도자들에게 근속상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부터 본회 회장으로 헌신해주신 고(故)이윤자 회장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윤자상'을 제정해 모범적 활동으로 귀감을 보여주고 있는 지부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올해는 경기도지부가 선정되어 도지부 회원 모두가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본회 주경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비자교육중앙회 지도자 모두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성숙한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며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석해주신 금융환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본회와 회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대회 축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박병돈 K-water 사업개발이사는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많이 국민적 물 절약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며 본회의 물사랑 운동 전개에 고마움을 전했다. 더불어 물절약 물사랑 운동에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수 전(前) 고려대학교 총장도 축사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선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소비자교육중앙회가 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건강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모범적인 단체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라며 지도자들을 격려해 주었다.

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본회 합창단의 축하에 이어 송인숙 서울특별시지부 동대문구 지회장은 성숙한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소비자리더로, 물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물사랑 지킴이로서 '우리의 다짐' 결의문을 선창했고, 참석자 모두의 제창으로 실천 결의를 다졌다.

대회식에 이어 지도자 자질 함양을 위해 천규승 (사)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이 '성숙한 소비문화를 이끄는 소비자 리더십 함양'이란 주제로 첫 강연을 맡아주셨으며, 김성한 K-water융합연구원장이 '건강한 수돗물과 물산업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해 주셨다.

주제 강연을 끝으로 참석한 지도자들 모두는 아쉬움 마음으로 내년 대회를 기약하면서 이번 대회

를 통해 여성 지도자로서 각오를 새롭게 하며 지역 사회에 필요로 하는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기로 했다. ☒

우리의 다짐

오늘 우리 소비자교육중앙회 지도자들은 성숙한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소비자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물 사랑 운동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 8대 권리를 통해 소비자의 주권을 확보하고, 소비자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된다.

하나. 우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 절약과 수질오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물 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지도자로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물 절약을 실천하고,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을 신뢰하며 수돗물 마시기에 동참한다.

2017년 4월 27일
소비자교육중앙회 16개 시·도지부
232개 시·군·구지회 30만 회원 일동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대회사로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주경순 본회 회장



대회 시작을 알리는 16개 지부기 입장



축사를 해주신 박병돈 k-water 사업개발이사, 이기수 전(前) 고려대학교 총장



이준식 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의 치사를 대독하는 금용환 실장



공로상과 10년 근속봉사자에 대한 시상식



모범적 활동으로 '이윤자상'을 받은 본회 경기도지부



축가를 부르는 본회 합창단



결의문을 선창하는 송인숙 서울시지부 동대문구지회장



주제강연을 맡아주신 천규승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물 사업의 미래에 대해 강의해주신 김성한 k-water융합연구원 원장



달콤한 당류, 건강하게 섭취하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주스류,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당이 들어있다. 정부는 나트륨, 트랜스지방과 함께 당류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하고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당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올바른 섭취 습관을 가져보자.

■ 한국인의 당류 섭취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13년 자료 분석 결과, 국민 3명 중 1명, 3~29세는 2명 중 1명꼴로 가공식품을 통해 기준보다 많은 당류를 섭취했다.

■ 당류 섭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류 섭취 기준에 따르고 있다. 한국인은 하루 2000kcal 정도(성인 여성 기준)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이 중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의 비율이 10%인 200kcal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4kcal은 1g이므로, 양으로 환산하며 50g이하다. 10g은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양이다.

■ 우유, 과일 등에 함유된 유당·과당 등 천연당은 줄이지 않아도 되나요?

당류 섭취량을 올리는 주범은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을 통해 먹는 당류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은 2007년 33.1g에서 2012년 44.7g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천연당 섭취량은 25~27g을 유지했다. 당류는 다른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과일·우유 등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천연당은 저감대상이 아니다.

■ 당류가 낮은 가공식품을 어떻게 고를 수 있나요?

제품 라벨의 영양성분표에서 당류 함량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 당이 적은 식품 '저당', '당을 줄인'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무가당·무당 식품엔 당류가 일체 들어 있지 않나요?

인위적으로 설탕·과당 등 당을 넣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가당 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

다. 무가당 식품엔 과당 등 천연당이 들어있을 수 있다. 무가당(無加糖)식품과 당이 일체 없는 무당(無糖) 식품은 의미가 다르다.

■ HFCS(고과당옥수수시럽)도 당류에 포함되나요?

HFCS는 옥수수의 포도당을 과당으로 전환시킨 설탕 대체제다. 미국의학협회(AMA)는 비만에 관한 한 설탕이나 HFCS나 해롭기는 마찬가지라고 발표했다. HFCS와 설탕은 같은 열량을 낸다.

내 식품업계에서도 HFCS를 미국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탄산음료·분유·과자·젤리·물엿·조미료 등 단맛이 나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 요리할 때 설탕 대신 넣는 요리당, 파우치에 든 레토르트 식품, 반찬가게에서 파는 콩자반·멸치볶음 등에도 숨어 있다. 식품 라벨에 옥수수시럽·콘시럽·액상 과당 같은 표시가 돼 있으면 HFCS다.

■ 어린이 청소년의 당류 섭취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어린이·청소년의 당류 섭취는 주로 가공식품인 탄산음료·빵·과자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탄산음료·사탕류 등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제품임을 마크·문구 등으로 표시하게 했다.

초·중·고교에서 커피 자판기는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와 주변 식품판매점에서는 소용량 음료를 우선 판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최근 설탕세 도입 국가가 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검토 중인가요?

설탕세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 평균 당류 섭취량은 아직 세계보건기구(WHO) 섭취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맞다.



당류 섭취 줄이는 법

- 가공식품보다 되도록 신선한 채소·생선·곡류 등 골고루 섭취하기
- 가공식품 구입 시 당류 함량 표시 확인해 당류가 적은 제품 선택하기
- 단순당 함량 높은 설탕·꿀·사탕·초콜릿 등 섭취 자제하기
-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기
- 목이 마를 때 단맛 음료 대신 생수 섭취하기
- 커피·음료 주문할 때 시럽·설탕 빼 달라고 주문하기
- 당류가 적게 함유된 음료 선택하기
- 케이크·머핀 등 디저트류는 덜 달고 작은 것을 선택하기
- 음료도 음식이란 사실 기억하기
-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덜 받기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이제는 앱으로 찾자

– 국토부, 7월 1일부터 ‘건설업체 파인더’ 앱 서비스 –



최근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색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업체를 찾을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오는 7월 1일(토)부터 시작하는 ‘건설업체 파인더’ 앱은 국민이면 누구나 상대적으로 간단한 인테리어부터 누수 보수, 신축 등 원하는 공사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설치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스콘]으로 검색하면 [KISCON 건설업체 파인더]가 표시되고, [설치]를 누르면 된다.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나에게 맞는 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는지 적정 규모의 회사인지, 또 해당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종류(신축, 인테리어, 보수/유지관리, 해체/철거) 중에서 선택한 후, 공사 규모(면적, 금액)를 입력하면 GPS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에 소재한 적정 규모의 건설업체 목록을 보여 준다.

이번에 보급되는 ‘건설업체 파인더’ 앱은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업체 정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신인도가 우수한 업체를 검색 가능하다.

그동안 인테리어 등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과거의 불법행위(처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파인더’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

소비 트렌드 ‘탕진잼’ 아시나요?

◆ 천원숍, 인형뽑기, 편의점 등 ‘탕진잼’ 장소로 꼽혀



소액의 돈을 탕진하면서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탕진잼’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다. 재물 따위를 흥청망청 써서 없앤다는 뜻

의 ‘탕진’과 재미를 뜻하는 ‘잼’을 합친 말이다.

탕진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다이소’다. 대다수의 상품 가격이 1000~2000원대여서 탕진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실제로 다이소를 가장 많이 찾는 세대는 20대다. 최근 변화가나 대학가에 인형 뽑기 가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인형 뽑기 가게는 탕진잼 트렌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21곳에 불과했던 인형뽑기방은 올해 1월까지 1,100여곳으로 증가했다.

◆ 가성비파·득템파·기분파 3유형으로 현재의 행복 추구

광고회사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지난 3월 ‘대한민국 신인류의 출현: #호모_탕진재미’를 통해 최신 소비 추세를 분석했다. 지난 1년간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동호회, 커뮤니티 등에서 수집한 6만건의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한 결과, 탕진잼의 소비가 3가지 양상을 보인

다고 관측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찾는 ‘가성비파’와 선호하는 물건을 소장·수집하는 ‘득템파’,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탕진하는 ‘기분파’로 나뉜다. 이노션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작은 사치’가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라면, 탕진잼은 적은 예산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들의 소비 심리에는 현재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성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 불황 속 ‘자신을 위한 소소한 사치’ vs ‘충동구매’

요즘 젊은 층 사이에 탕진잼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은 이유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팍팍해진 현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회사, 학교를 다니며 시간과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여행 등 취미생활을 즐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쇼핑과 인형 뽑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신에게 ‘이 정도의 선물은 해야지’ 하는 생각에 탕진잼에 빠지고 결국 충동구매로 이어져 스트레스가 되는 부정적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지출을 제한해 탕진잼의 본래 의도를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용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경제다반사’〉

소비자의 소리

노트북 제품 불량, 제품 교환 대신 부품 교체로 처리

상담 소비자는 2개월 전에 가전제품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매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 사용은 하지 않다가 2개월째 사용하려니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A/S센터를 방문했다.

A/S기사의 진단 결과 노트북의 무선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부품 한 개가 원래 불량품이라고 하면서 부품을 교체해준다고 했으나, 소비자는 제품불량인 노트북의 교환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했다.

처리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 후 1개월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소비자의 경우 구입한 지 2개월이 지나서 확인 요청을 했지만, 부품 자체의 불량을 제품 불량으로 보고 본회에서 해당 업체 측에 보상조정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 구입 초기부터 불량이었으나 2개월 후에 확인된 부분임을 감안

해 보상해주기로 했고, 이후 해당 모델의 재고가 원활치 않아서 노트북 구입가 176만원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어 처리되었다.

전동 킷보드 성능, 광고와 달라 반품 요구하니 거부

상담 소비자는 S인터넷 쇼핑몰에서 전동 킷보드를 구매했다. 상품설명에 속도가 최대 32km/h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배송 받은 지 2일째 시험주행을 해보니 속도가 10km/h 밖에 되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다.

반품 수거한 지 한 달째 환불 확인이 안 되어 인터넷 쇼핑몰에 문의하니,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해당 판매 사업자가 반품 '보류'로 해두어서 환불이 안 된다고 하여 소비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S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자는 킷보드를 반품 받아보니 킷보드에 흠집이 나있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 반품이 불가하며 소비자와 연락이 안 되어 반품 보류를 했다고 하였다. 배터리의 문제일 수 있으니 배터리 교체는 해주겠으나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의 입장은 킷보드를 주행하다보면 흠집이 날 수 있

으나, 파손 안 된 상태로 반품했고 판매자가 전화한 이력이 확인 안 된다며 배터리 교체 시 배송비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본회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측에 킷보드의 광고내용과 성능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소비자가 반품 요구를 할 수 있고, 킷보드 시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위의 흠집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킷보드 구매금액 399,500원을 소비자에게 환불 처리하였다.

휴대폰 대리점의 계약조건 오류로 부당요금 청구돼

상담 소비자가 2년 6개월 전 휴대폰 대리점 소속의 영업사원을 통해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면서, 기존에 가족결합 할인 혜택을 받던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최근 소비자가 휴대폰요금 내역서를 보고 가족결합 할인이 아닌 기기할인 적용이 되어 할인혜택을 적게 받은 것을 알게 되어 사업자 측에 차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영업사원과 대리점, 이동통신사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처리가 안 되어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본회에서 해당 이동통신사에 소비자의 휴대폰 기기변경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결과, 기기변경 이전에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있었으며 기기변경 시에도 할인 혜택유지가 가능했으나, 대리점에서 다른 할인조건으로 잘못 처리해 소비자가 30개월 동안 774,56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사업자 측에 계약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부당 청구되어 납부한 요금을 환불해 줄 것

을 요청했으며, 해당 대리점에서 업무 실수를 인정해 부당 납부된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학습지 이용시 지점과 본사에 등록된 계약 내용 달라

상담 소비자는 K학습지 OO지점에서 자녀의 학습지 계약을 주 3회 방문 수업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후 4개월째 이용 중에 본사 고객센터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약한 해당 지점에서 주 1회 수업 받는 것으로 본사에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가 해당 지점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것에 항의하니, 임의로 등록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보상조치는 해주지 않아서 소비자가 본회에 보상과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처리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 및 피해 사실이 입증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수업의 횟수는 이행되었으나, 주 3회 수업을 주 1회로 등록하여 본사로 부터 교재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본회는 K학습지 본사 측에 해당 지점의 계약조건 임의등록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보상과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해당 지점에서 지점의 부당 조치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차이 등을 일부 인정해 소비자가 학습지 교육을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었다.

<김영란/ 본회 소비자상담 실장>

구원(具元)농장의 고양이, 라온

원 숙 자 / 수필가

여자가 고양이를 안고 인도의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걷고 있다. 그 길의 오른쪽은 봄이면 개나리가 샀노란 울타리를 이루는데 지금은 잎만 무성하다. 산책 좀 할까, 하고 양천공원 쪽으로 걸어가 있는데 고양이를 안은 여자가 앞서서 걷고 있다. 여자는 무엇인가 계속 고양이에게 말을 건네며 걷고 있다. '그래, 너는 푸른 잎을 보면 환장하지'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 길을 한없이 걸어볼까?' 그러는 것 같기도 하다. 여자가 고양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지만 실상 푸른 잎을 보면 환장하는 건 여자일 테고, 그 길을 한없이 걷고픈 것 역시 여자의 마음일 테다. 고양이는 꽤 커서 묵직해 보이는데 여자는 가볍게 안고 걷고 있다. 사랑스러우면 무거워도 무겁지 않을 것이다.

에세이스트, 김현진 씨는 자신의 생일날 이웃에 사는, 평소 자신이 먹이를 주며 예뻐하던 고양이를 초대했다고 한다. 동물병원에서 맛있는 특제 캔을 몇 개 사와서 생일 음식으로 차려 주었다. "그래도 친구라고 통조림이라도 먹일 수 있잖아. 내년에도 초대할 수 있게 열심히 살아보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했더니, 이 고양이 만족하며 "야옹야옹" 하고 대꾸하더라. 고양이에게 "열심히 살아보자"고 한 김현진 씨의 말은, 양천공원의 그녀처럼, 자신에게 다짐 두는 말일 것이다. 어쩌면 '야옹야옹' 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고양이가 사람의 마음을 풀어 주는 더 진지한 친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산책길의 여자도 안고 걷는 저 고양이가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직한 친구일지도 모른다. 여자가 찾길을 건너더니 이번에는 찾길과 인도의 경계를 이루는 사철나무 울타리 쪽으로 바짝 붙어서 여전히 뭐라 뭐라 하며 걸어가 있다. 고양이를 아기를 안 듯 가슴에 품고 걸어가 있는

여자에게 미안하고, 고양이와 생일 파티를 즐기고 있는 김현진 씨에게도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고양이가 싫다. 뿔보다도 그 눈이 싫다. 고양이가 싫지만 고양이보다 더 싫은 게 있다, 쥐다.

충북 고향에 조그만 농장이 있어 그이는 농장에서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와 겨울을 난다. 나는 서울에 살면서 주말에만 농장에 내려간다. 그이가 주중에 먹을 밑반찬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조(賭租)로 1년 먹을 수 있는 양의 쌀을 가마니로 받는다. 그러면 농장의 마루에 식탁과 유리문 사이에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두툼한 매트를 얹고 매트 위를 비닐로 덮어 햇볕을 차단 시켜준다. 햇볕이 닿으면 쌀자루가 삭으며 쌀알이 마르기 때문이다. 물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비를 해야 한다. 그이가 쌀을 두 말 정도씩 나누어 비닐에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입을 끈으로 꼼꼼 매준 다음 다시 쌀자루에 넣어서 쌓아 놓는다. 얼마나 세게 매 주는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입을 열 수가 없다. 그렇게만 해주면 1년을 두고 먹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처음엔 쌀 간수를 제대로 못해 여름엔 쌀벌레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른다. 쌀독에 마늘을 넣어주면 쌀벌레가 안 생긴다고 하지만 그도 허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벌레도 숨을 쉬어야 사는지라 공기만 차단시키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루는 농장의 마루 식탁에 앉아 있는데 뭔가 얼핏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뭘까? 긴가민가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인데 어느 날 그이가 쌀을 꺼내려고 쌀자루를 풀다가 어어, 하고 소리를 지른다. 쥐가 쌀자루에 구멍을 뚫어 쌀이 마루에 질펀히 떨어져 있던 거다.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내 걸을 스치

고 지나간 건 쥐임에 틀림없다. 쥐가 실내 어디론가 드나든다는 얘긴데 저를 어찌! 쌀자루 아래에 끈끈이를 갖다 놓았지만 좀체 걸려들지 않을 뿐더러 더욱 극성스럽다. 마루 밑에서도 심하게 감죽대서 참을 수가 없다. 손이나 막대기로 두들겨 보지만 사람을 놀리듯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 급기야 그이가 인터넷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다운받아 크게 틀어놓아 보지만 기계음 고양이 소리임을 알아챈 것일까? 막무가내다. 아파트가 아닌 시골집들이야 헛간, 곳간이 있어 쥐 먹거리가 넘쳐난다. 시골 사람들은 쥐가 그냥 일상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쥐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그이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이장한테 쥐 퇴치 방법을 물었던 모양이다. 길고양이를 집 주위로 유인할 수 있는 고양이 먹이를 놓아 주라고 했단다. 그이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고기를 쥐가 잘 드는 컨테이너 뒤편에 놓아두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릇이 깨끗이 비었다. 하하, 고양이가 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쥐들이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지? 고양이를 싫어하긴 했지만 더 싫은 쥐를 퇴치해 준다니 고맙기만 하다.

농장에 드나들기 시작한 고양이는 머리와 등이 누런 색이 섞인 회색이고 다른 부분은 흰색이다. 생김새가 그런대로 마음에 든다. 고양이치고 유순하니, 눈도 아주 매력적이다. 왜, 고양이는 매양 모두가 날카롭고 눈도 매섭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날카롭다고 하면 눈이 아니라 먹이 사냥을 할 이빨과 발톱일 텐데.

고양이는 어디론가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현관 앞에 앉아 '야옹~ 야옹~' 한다. 마치 맡겨 놓은 먹이 달라는 듯이, 자기는 쥐를 쫓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먹이를 쥐야 하지 않겠느냐는 듯이 말이다. 마침내 그이가 고양이 먹이를 사왔다. 거금 16,000원을 들여서. 이제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 같다. 마냥 "야옹아~" 하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뭘라고 해야 할까? 이왕이면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그를 부를 때마다 내 스스로 기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순우리말로 지어주고 싶다. 퍼뜩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에 여자 주인공 이름, '라온'이다. '라온'은 순 우리말인데다가 '기쁜', '즐거움' 뜻이 있다. '딱' 이야. 스스로가 생각

해낸 이름이 딱 마음에 들어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우리 농장에 자주 오시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고양이에 관한 전말을 얘기했더니, "이제 길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된 거여" 하신다.

고양이가 '라온'이라는 제 이름을 언제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부르노라면 언젠가 알아들을 테고 그리고 그 이름, '라온'은 내게로 와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온이는 어디서 자고 오는지 모르나 아침 10시쯤에 나타난다. 라온이가 나를 먼저 부른다. 못 듣고 있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야옹~' 거린다. 고양이에게 내 이름은 '야옹' 인 게다. '야옹~' 속에는 어쩌면 '엄마' 라는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 라온이는 먹이를 먹으면 현관문을 나선다. 그리고 어디론가 돌아다니다 오후에 한 번 또 나타난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도 먹이만 먹으면 어김없이 문을 나선다. 나는 그게 안쓰러워 이름을 부르지만 못 들은 척 가버린다. 마침내 그이가 컨테이너 뒤편에 천막으로 작은 집을 지어 주었다. 그래도 아직은 천막에서 비를 피하거나 바람을 피하지 않는다. 물론 잠도 자지 않는다.

이젠 먹이 먹는 시각에 라온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궁금하고 기다려진다. 차를 타고 지방도로를 다니다보면 차에 치여 죽은 짐승을 볼 때가 있다. 라온이가 늦어지면 것처럼 교통사고라도 났나 싶어 애가 탄다.

어쩌면 나도 에세이스트 김현진 씨처럼 내 생일이 아니라 라온이가 우리 농장에 온 날을 기려 생일파티를 열어주고, 양천공원의 그녀처럼 라온이를 안고 주절주절 말을 건네며 농장 주위를 걸어 다닐지도 모르겠다. ☺

작가 소개

1995년 <문학21>에 수필로 등단.
<여성동아>,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칼럼에 수필 게재.
지은 책 <나뭇잎 바이올린 쉼표, 춤춰봐, 춤춰봐, 춤춰봐>
<당신은 저녁해 나는 저녁노을>
<우리는 일흔에 봄을 준비했다>가 있다.





전기절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에어컨만 쓰는 것이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쓸 때보다 시원하다?

- ▶ 50℃의 물 500ml로 30분간 냉방효과 비교
 - 에어컨만 단독(강풍) 사용할 경우 : 50℃ → 43℃ (7℃ ↓)
 - 에어컨(약풍)과 선풍기(미풍) 함께 사용 : 50℃ → 28℃ (22℃ ↓)

Q2 에어컨 설정온도 26~28℃가 건강온도인 이유는?

- ▶ 실내외 온도차 5℃ 이상인 상태에서 장시간 업무 시 : 면역력 저하로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비염, 폐염 등 유발 가능
- ▶ 적정 건강온도 지키자 : 여름(24~28℃), 겨울(18~20℃)

Q3 냉온수기의 온수 기능은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냉·온수 기능 모두 사용하면 냉수기능만 사용할 때보다 전력소모 5배 발생
 - 온수기능 대신 커피포트 사용 권장(1리터 물 끓일 시 90Wh소모)

Q4 하절기 장마철 제습기 사용, 전력 소모가 심하지 않다?

- ▶ 제습기 8시간/일 이용시, 한달 평균 약 80kWh소비
 - 향초, 숯,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제습하는 것이 전기절약에 효과적

Q5 냉장고 내부를 꽉 채워도 전기요금에 전혀 영향이 없다?

- ▶ 냉장실 내 10% 추가시 전기소비 약 3.6% (1.8kWh/월) 증가
 - 냉장실은 60%, 냉동실은 꽉 채우는 것이 전기절약에 유리

Q6 엘리베이터 '달힘' 버튼을 누르면 전력이 낭비된다?

- ▶ 달힘버튼 누를 시 미세한 전력소비 발생, 엘리베이터 운행 대비 미미한 수준
 - 달힘버튼 없애는 것이 전기절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Q7 화면보호기가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된다?

- ▶ 화면보호기는 화면만 어둡게 하며 전기절약에 크게 도움이 안됨
 - 모니터를 끄거나, 모니터 밝기를 70%로 사용하는 것이 전기절약에 유리

Q8 잠깐 나갈 때는 전등은 끄지 않는 것이 좋다?

- ▶ 전등 스위치 온·오프는 전기사용량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잠깐 외출이라도 전등을 꺼주는 것이 절전에 도움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휴양림 숲길로 떠나볼까요

푸르름이 깊어지는 6월의 숲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휴양림 숲길 체험'이라는 주제로 전국 유명 휴양림을 소개했다.

첩첩 산골 은둔의 유토피아,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



6월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숲으로 들자. 청정한 계곡이 펼쳐진 강원도 첩첩 산골은 어떨까. 백두대간 구룡령 아래 자리한 미천골자연휴양림은 은둔하기 좋은 곳이다.

울창한 숲길을 지나 신비로운 불바라기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에 발 담그고 세상을 잠시 잊어보자. 휴양림에서 묵은 다음 날에는 양양의 바다를 찾아간다. 가는 길에 해당마을에서 수륙양용자동차 타고 스티를 즐기고, 송천떡마을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떡도 맛보자. 갈대 흐드러진 남대천연어생태공원을 거닐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낙산사에서 여행의 대미를 장식한다.

다도해 옆 편백 바다,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품고 하늘로 치솟은 편백의 물결. '다도해의 보물섬'에 자리한 남해편백자연휴양림은 227ha에 이르는 편백과 삼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힐링을

약속하는 곳이다. 피톤치드는 특유의 살균 효과 덕분에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질환에 효험이 있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정신을 맑게 해준다.

편백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나무로 알려졌다. 황사와 미세 먼지에 찌든 우리에게 편백 삼림욕이 필요해 보인다.

힐링과 모험이 공존하는 숲,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996년에 정식 개장했다.

제암산은 해발 807m 정상에 임금 제(帝) 자를 닮은 바위가 우뚝 솟아서 붙은 이름이다. 산세가 수려하고 주변 경치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휴양림 안에 숲속의집과 휴양관 등 숙박 시설 47실과 계곡 물놀이장, 야영장, 등산로와 산책로, 모험 시설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갖췄다.

이곳을 대표하는 힐링 주자는 더늠길이다. 능선을 넘나들며 울창한 숲길을 걷는 무장애 산악 트레킹 코스로, 5.8km 전 구간이 평평한 데크로 만들어졌다. 경사가 완만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해, 노인과 아이는 물론 장애인도 편하게 숲길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지부 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 국민건강보험 및 경제교육

시지부(회장 김기묘)에서는 5월 10일 시지부 교육실에서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김윤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센터장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달리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5월 30일 영도구 노인복지관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행복한 노후경제교실'을 갖고 허위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어르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지부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도' 바로알기

시지부(회장 이경숙)에서는 5월 19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대강의실 회원 및 소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마련한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바로알기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 에너지사랑,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

시지부 회원 8명은 5월 23일 대성보육원을 방문해 보육원생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필터 청소, 선풍기 지원, LED교체와 함께 에너지절약 퀴즈시간 등으로 에너지사랑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지부

■ '초록빛 세상, 내가 만든다' 녹색소비 실천교육

시지부(회장 김현숙)에서는 '초록빛 세상, 내가 만든다'를 제목으로 녹색소비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5월 12일 청람초등학교 교육실에서 학부모 3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부 김복순 부회장이 이룬 교육을 실시했고, 23일 시지부 교육실에서 회원 10여명이 천연비누와 EM용액 만들기 등 친환경 경제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교육을 받았다.



■ '차세대를 위한 행복한 여성 리더십' 교육

시지부에서는 5월 18일 길상초등학교 교육실에서 학부모 20여명을 대상으로 '차세대를 위한 행복한 여성 리더십'이란 주제로 자녀를 둔 어머니, 부모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봉사활동

옹진군지회(회장 정광자) 회원 5명은 매주 월요일 면사무소 행복나눔터를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중식제공 도우미로 활동했고, 회원 8명은 5월 10일과 24일 군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 3분의 가정을 방문해 집안청소와 말벗이 되어 드렸다.



광주광역시지부

■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5월 25일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대강당에서 회원 및 소비자 38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식품 원산지 위반사례 설명과 함께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 및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 자연정화 캠페인 및 요리 경진대회 참가

시지부 회원 2명은 5월 15일 광주천과 해당촌 일대에서 자연정화 홍보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고, 26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웰빙 스마트 우리 농산물 요리경진대회'에 참가했다.

대전광역시지부

■ 찾아가는 눈높이 소비자정보전시회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5월 27일 보문산 등산로 입구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눈높이 소비자정보전시회'를 개최해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소비자 피해 유형 및 구제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소비자 상담을 진행했다.



■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조사

시지부 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9명은 5월 17일 대전 지역 내 유통점 30곳을 대상으로 생필품 54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울산광역시지부

자전거교육 및 교육장 운영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건강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를 위해 권장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월요일과 수요일 남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각각 자전거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교육 및 요리교실

시지부에서는 5월 12일 축협 6층 교육실에서 회원 45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 인증농식품제도,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홍보 교육을 실시했으며,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요리실습 시간을 마련했다.

환경퀴즈대회 및 찾아가는 EM 환경교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친환경 제품 등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16일과 19일 라임어린이집과 새이슬어린이집을 각각 방문해 환경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환경퀴즈대회'를 가졌으며 EM을 활용한 캐릭터 비누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

시지부 회원 15명은 5월 23일 정자교회(북구 정자동 소재)를 방문해 지역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도우미, 손과 발 맛사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기도지부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도지부(회장 박명자)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4명은 5월 16일과 18일 못골시장과 미나리광시장 일대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고, 26일과 2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회원 10명이 참여해 농산물명예감시원 실무요령을 익히는 교육을 받았다.



위생점검 활동 및 봉사활동

수원시지회(회장 김순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동하고 있는 회원 8명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명이 각각 5월 1일~8일까지 수원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8일~24일에는 모범음식점 재지정업소 위생평가 및 좋은 식단이 행여부 점검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각각 실시했다.

한편, 5월 25일에는 정자동 장수경로당에서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텃다방, 건강보조 식품 등 어르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회원 4명~5명은 매주 수요일 수원시종합자원센터에서 '사랑의 밥차' 자원봉사 활동, 오목천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중식조리 및 배식 도우미로 활동했다.

용인시지회(회장 장복희)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5월 11일~12일, 13일과 23일 재래시장 일대 음식점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파주시지회(회장 김순자) 회원 8명은 5월 16일 조리읍 봉일천 사거리에서 클린 데이를 맞아 골목길 및 주변 공원 내 환경미화 활동, 19일 회원 9명은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점심배식 및 설거지 봉사, 25일 회원 13명은 조리읍과 광탄면 거주 저소득층 20가구에서 생필품을 전달하는 푸드마켓 봉사활동을 각각 실시했다.



찾아가는 이동서비스센터 운영

남양주시지회(회장 박순자)에서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서비스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월 19일~25일 마석 LIG 아파트, 평내동 금호아파트, 진접읍 내각리 한신아파트 등에서 LG전자, PN풍년밥술, 기아·현대 자동차 서비스 직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가전제품 수리 및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충청북도지부

어린이 경제·소비교육 인형연극제

도지부(회장 김정자)에서는 5월 2일 대원어린이집, 8일 아이자람터, 15일 훈민정음 어린이집, 16일 시온어린이집 등 4곳의 어린이 1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일상생활 속 올바른 경제·소비생활 방법을 인형연극으로 꾸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봉사활동

충주시지회(회장 홍복순) 회원 3명은 5월 11일 울리요양원과 성지요양원을 각각 방문해 떡 한 말을 준비해 전해드리며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괴산군지회(회장 김미경) 회원 4명은 5월 5일 여성회관을 방문해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주먹밥 만들기에 동참했다.

단양군지회(회장 서옥희) 회원 18명은 5월 23일 여성발전센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보은군지회(회장 정해자) 회원 45명은 5월 17일 보은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이용자를 위해 김치를 담가드렸다.

옥천군지회(회장 윤순예) 회원 13명은 5월 11일 여성회관에서 열린 바자회에 참여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증평군지회(회장 이창숙) 회원 9명은 매주 금요일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식제공 도우미로 활동했으며, 5월 23일에는 복지관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어 장애우 가정에 전달했다.

진천군지회(회장 이은중) 회원 5명은 매주 수요일 진천군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중식 제공 도우미로 활동했으며, 5월 25일 회원 3명은 생거진천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남도지부

■ 건강한 미래를 위한 불량식품근절 캠페인

도지부(회장 조춘자) 회원 20명은 5월 20일 공주시 문화공원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불법 재료 등을 사용해 건강에 유해한 음식을 제조하는 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 충남도지부 지도자대회

5월 26일 백제새마을금고 다목적홀에서 도지부 임원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숙한 소비문화를 이끌어 가는' 충남도지부 지도자대회를 개최해 소비자 리더로서의 역할 모색 역할과 함께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소비자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

논산시지회(회장 이영화)에서는 5월 23일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소비자 전문 강사인 임귀연 충남도지부 국장이 실생활에 필요한 사례중심으로 소비자상식 및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부여군지회(회장 이명순) 회원 30명은 5월 27일 부여군 변화가 일대에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부여 유적지 주변 상점가의 서비스요금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 및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소비가 되도록 유도했다.

전라북도지부

■ 어르신을 위한 한글교실 및 봉사활동

도지부(회장 강정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도지부 강의실에서 글을 모르는 어르신 13분을 모시고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12명은 매주 수요일 노송천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식중독예방 캠페인

도지부 회원 20명은 1일, 8일, 11일, 15일, 18일, 20일 6일 동안 전주신중앙시장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축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회원 10명은 5월 18일 전주시 객사 및 한옥마을 일대에서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식중독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

5월 19일 한국소리의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및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심재기 팀장이 강사로 자리해 주시어 명예감시원의 의무를 비롯해 농식품 원산지 위반사례 설명과 함께 GAP제도 등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 전북도지부 시군지회 회장단 워크숍

5월 25일~26일 도지부 14개 시군지회 지회장 및 임원 18명이 1박2일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물사랑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용감담 방문 및 도지부 운영위원 김효순 김제교육청 교육장으로 부터 리더십 제고를 위한 강의를 들었으며 이후 지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소비자교육 및 캠페인

군산시지회(회장 박희순) 회원 3명은 5월 10일~12일, 15일 영화동 등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 및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16일 남전경노당에서 어르신 26명을 모시고 노인을 위한 소비자피해예방 교육 및 웃음치료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익산시지회(회장 신희자) 회원 12명은 5월 11일 영등동 사거리에서 '아기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남원시지회(회장 이선민) 회원 7명은 5월 27일 남원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자장면은 만들어 대접하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부안군지회(회장 이은명) 회원 5명은 5월 4일 부안마실축제 축사 시낭송회에 참여해 재능기부 나눔을 실천했다.

전라남도지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및 홍보 교육

도지부(회장 이송자)에서는 5월 11일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회원 및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제도의 중요성을 비롯해 원산지표시 방법 구분 등 관련 홍보 교육을 실시해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막아 놓어민 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 봉사활동

순천시지부(회장 신애란) 회원 10명은 매주 수요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노인을 위한 급식제공 및 말벗 도우미로 활동했고, 회원 40명은 25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실내에서 순천시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잡초제거 및 쓰레기 줍기 등 환경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했다.



강진군지회(회장 윤순옥) 회원 4명은 5월 20일 강진군스포츠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7 한국실업배구연맹전'에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무료 음료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지부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음식 만들기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에서는 5월 9일 안강읍 농협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25명과 함께 한국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한식 도시락을 함께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봉사활동

구미시지회(회장 남현숙) 회원 11명은 5월 5일과 19일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의 전당'을 방문해 중식 제공 도우미 및 시설 내 청소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문경시지회(회장 김명자) 회원 9명은 5월 17일 문경시립요양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야외나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주시지회(회장 이수영) 회원 7명은 5월 17일 무료급식소인 하망동 '만남의 집'을 방문해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포항시지회(회장 남순례) 회원 34명은 매주 월요일 학산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주거현장에 배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고령군지회(회장 설미선) 회원 5명은 5월 24일 대창양로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화군지회(회장 권영순) 회원 7명은 5월 25일 봉화군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중식 제공 도우미와 말벗이 되어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성주군지회(회장 구순자) 회원 8명은 5월 15일 가야산 관운사를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중식 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영양군지회(회장 김경숙) 회원 6명은 5월 2일 영양군복지회관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조리 및 배달 봉사활동, 회원 8명은 12일 군민운동장에서 열린 산나물축제 시식코너에서 안내 도우미로 봉사했다.

울진군지회(회장 이미례) 회원 9명은 북면 주인2리 마을회관에서 '행복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주민들을 위한 자장면 중식 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예천군지회(회장 권춘선) 회원 4명은 5월 10일 예천성당 나눔의 집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과 설거지 등 식사제공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경상남도지부

■ 원산지 명예 단속반장 위촉 및 활동

도지부(회장 김점숙)에서는 우리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명예감시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8일 김점숙 도지부 회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권진선 지원장으로부터 원산지 명예 단속반장으로 위촉장을 받아 상남시장 일대에서 원산지표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봉사활동

거제시지회(회장 김두임) 회원 10명은 지난 4월 27일 옥포중학교 앞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창원시마산지회(회장 이수련) 회원 25명은 5월 19일 성호초등학교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고, 회원 28명은 11일과 18일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치매어르신 노인요양시설 춘추원을 방문해 국악교실 운영과 주방 보조 활동, 동화구연 책 읽어주기 등 재능기부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창원시진해지회(회장 박은조)에서도 5월 15일 진해 중원 로타리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중앙성당 '만남의 집 급식소'를 방문해 급식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통영시지회(회장 문정자)와 함양군지회(회장 임순남) 회원 15명은 지난 4월 28일 동원중고등학교 정문과 함양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각각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 창원지회 신입회원 환영식

창원시창원지회(회장 손영옥)에서는 5월 18일 성산아트홀 뷔페에서 창원관내 교육장 감사장을 수여받은 모범 어머니 10여명을 창원지회 신입회원으로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교육

도지부(회장 강순희)에서는 지난 5월 2일 축협 한우프라자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고흥준 주무관, 홍성수 주무관으로부터 원산지 비교법 및 위반 사례 설명과 부정 유통 근절 감시 방법 등 명예감시원으로서의 활동 및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 월례회의 및 장바구니 물가조사

지난 5월 2일 축협 한우프라자 2층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 및 임원 20명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가졌으며, 물가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5명은 매주 화요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형마트 15곳을 대상으로 기초생활품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도청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올려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앙회 소식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중앙회(회장 주경순)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심각성에 대한 홍보 교육과 함께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 저탄소생활 확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비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상가에 이어 올해는 가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5월 19일(금) 중앙회 3층 교육실에서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문

컨설턴트 40여명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등 5개 지역 내 가정 400곳을 방문, 컨설팅 활동으로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 찾아가는 에너지바우처 봉사활동

정부가 에너지 취약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회 모니터 10명은 6월 14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과 함께 성남시 성남동과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총 43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바우처 안내와 함께 미니선풍기, 김세트 등 방문선물 등을 전달하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편의를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바우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17년도 전국지도자대회 찬조금 내신 분

(단위 : 원)

중앙회 이사		권화순 부회장	300,000	73기 일동	100,000
이사회 일동	10,000,000	최성숙 부회장	300,000	74기 일동	100,000
주경순 회장	5,000,000	김옥경 부회장	300,000	75기 대표 최영자	100,000
이영주 부회장	3,000,000	원영옥 감사	200,000	75기 일동	200,000
남상택 부회장	1,000,000	이순애 감사	300,000	76기 대표 유기순	100,000
추혜옥 이사	500,000	한옥분 총무	100,000	79기 일동	100,000
이종여 이사	2,000,000	조순정 회계	100,000	79기 대표 김윤영	100,000
조춘자 이사	1,000,000	김혜경 회계	100,000	80기 대표 강경자	100,000
진신자 이사	1,000,000	장병숙 서기	200,000	81기 일동	200,000
주순임 이사	1,000,000	유종예 임원	100,000	82기 대표 신규순	100,000
권 순 이사	1,000,000	한복님 임원	100,000	82기 일동	100,000
서병희 前이사	300,000	하명자 임원	100,000	83기 일동	200,000
정수경 前이사	300,000	신성철 임원	200,000	84기 일동	100,000
운영위원회		신정숙 임원	200,000	85기 일동	100,000
김경애 회장	800,000	조순남 임원	100,000	86기 대표 이정식	100,000
정재연 부회장	500,000	이순영 임원	200,000	86기 일동	100,000
손영희 총무	300,000	최국자 임원	100,000	87기 일동	100,000
한돌순 위원	300,000	최영복 임원	500,000	88기 일동	100,000
윤묘근 위원	300,000	박정자 임원	200,000	합창단	
지회장		이인순 임원	200,000	합창단 일동	300,000
서울시지회장 일동	500,000	이순늬 임원	200,000	홍현정 부단장	200,000
이옥순(광진)	200,000	김신자 임원	200,000	김광자 부단장	200,000
양석금(종로)	100,000	이길자 임원	100,000	함정자 부단장	200,000
박정례(서대문)	100,000	동문회기별		손정순 부단장	200,000
김금희(성북)	100,000	45기 일동	100,000	박선숙 부단장	200,000
곽한옥(강남)	100,000	46기 대표 김경희	100,000	총무 안정순	100,000
강남구지회 일동	200,000	46기 일동	100,000	단원 최순숙	300,000
홍현숙(강북)	100,000	48기 일동	100,000	산악회반	
은평구지회 일동	500,000	58기 대표 정연화	100,000	산악회 일동	200,000
송인숙(동대문)	100,000	58기 일동	100,000	편순애 회장	300,000
이정옥(강서)	100,000	63기 일동	100,000	이성천 부회장	50,000
하태영(성동)	100,000	65기 일동	100,000	이복순 부회장	50,000
성동구지회 일동	100,000	66기 대표 권명효	100,000	장선애 부회장	50,000
이명순(용산)	100,000	66기 일동	100,000	윤세진 부회장	50,000
이강자(중랑구)	100,000	67기 대표 유기순	100,000	모니터	
최정례(前강북)	100,000	67기 일동	100,000	모니터 일동	1,700,000
동문회 임원		68기 대표 이정환	100,000	김창욱 회장	100,000
동문회 일동	10,000,000	68기 일동	100,000	부속기관	
권정숙 회장	1,000,000	70기 대표 김순자	300,000	이보섭 관장	1,000,000
조원자 부회장	300,000	70기 일동	100,000	신양숙 원장	300,000
유수남 부회장	300,000	72기 일동	100,000	신애란 관장	2,000,000

소비자교육중앙회 게시판

주부대학·대학원 방학

본회가 운영하는 주부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주부대학(89기)과 주부대학원(25기)이 다음과 같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기간	개강일시
제89기 주부대학	2017. 7. 27~2017. 8. 27	2017. 8. 27/10:30
제25기 주부대학원	2017. 7. 28~2017. 8. 30	2017. 8. 30/10:30

가정 대상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가정·상가 등 비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본회에서는 5월~10월 서울, 인천 등 5개 지역 내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해 효율적 에너지절약 실천 유도 및 범국민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 교육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활동
일정	5월~10월	
대상	일반 시민 300여명	가정 400곳

의류 및 세탁물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업체간의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의류심의분쟁조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매주 화요일 9:30~17:3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또는 킷서비스 이용(지방에 한해 택배 가능)
- 접수문의 : (02) 2266-5870, 2273-2485, 6300
- 홈페이지 : www.ncce.or.kr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jungang.seoulwomen.or.kr
- 문의 : (02)3409-1948~9

The history of



수분으로 빛나는 로얄 화이트닝

수분이 감도는 하얀 피부는 빛부터 다릅니다. 투명한 물방울이 피부에 맺히며 깊은 미백에 영롱한 빛까지- 손 끝에서 느껴지는 로얄 화이트닝의 빛을 느껴보세요.

공진향: 실 미백 수분 크림